

#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관련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in University Students

곽경숙\*\* · 한아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Kyoung Sook Kwark · A Reum Han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of university students. Subjects were 488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Junbuk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1.5 for Windows program was utilized to analyze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Ward's metho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 First, the university student's gender equality appeared a little above the middle level. Female student's gender equality was higher than male. Second, the university students'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appeared at the middle level. Male students appeared to be higher than female at 'support and repair of housing' unit. Third, the higher university students hav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he better they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Group one recording where the gender equality is high 'Living quarter application', 'Indoor environment and equipments' units the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was high. Forth, correlation of variable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and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s a conclusion,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in their real life. These results should be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improving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Gender Equality, Practice of Housing Education Contents

### I. 서론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와 직결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

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이 될 것이다.

기술·가정 교과 중 주생활 단원의 목표는 생활공간의 특성에 맞는 공간의 활용방법과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며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있다. (교육부, 1997). 이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주생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거 환경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주거 및 주거환경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함을 의미한다.

근래까지 학교 교육에서 다른 교과목은 남녀가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가정교과 만은 유독 여학

\* 본 연구는 2007 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wark Kyoung Sook  
Tel: 063) 850-6587  
E-mail: kskwak@wonkwang.ac.kr

생만, 기술교과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 고시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내용의 양성 평등의식을 강조하여 남녀 공통과목으로 전환하였고, 남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4).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통합여부는 제5·6차 교육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적어도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형식적 요건에서는 양성평등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 연구되었거나 가정과 교육 연구 전반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수행되었을 뿐,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영역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독립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6·7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를 조사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정교과는 종합과학이며 실천과학이므로 이미 이수한 가정교과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일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근거한 차별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의식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양성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주생활 교육과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한다'는 뜻이다. 즉, 남녀가 지니는 비본질적인 특성 즉, 능력, 기질, 성격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식은 1980~90년대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와 더불어 강조되어 왔다.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을 기점으로 교육부분에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부터 양성평등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청소년의 양성평등교육은 1998년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적극적인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성의 다름이 우열로 인식되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은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과 함께 학교교육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하였다. 남녀를 평등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교육의 의미는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다(교육부, 1999).

인간은 누구나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사회든지 각각의 성별이 지니는 일련의 특성에 대해 여성은 여자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분화하여 양성 간의 역할에 융통성 없는 역할분담을 하게 되었다. 활동영역에서도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별을 하며 이러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1차적 요인이 되고 있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는 사회는 결코 양성평등사회가 될 수 없으므로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양성평등교육'은 교과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활동에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교육활동 자체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말은 첫째, 남녀 양성에게 똑같은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초보적인 의미의 양성평등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 평등한 교육의 또 다른 의미는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취·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남녀와 똑같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성취·결과에 있어 평등을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때 성취나 결과에 있어서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 남녀 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양성 평등한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김재춘, 왕석순, 2000).

전통적으로 가정과 교육은 여성에게만 필요한 교과과

는 인식이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신념으로 고착되어 학교교육 정책에서 여학생 만 가정 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정과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은 남녀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가정과 교육이 성역할 분리 의식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기존의 여러 교육 내용들을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양성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을 기점으로 교육부에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1998년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적극적인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서 양성간에 평등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별 불평등이 유지 강화되어 사회구조에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범윤경, 1998).

김선희(200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전통적 남성의 성역할 및 태도를 상징하는 물리적 힘을 요하는 문항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 및 진로상황을 판단하는 문항에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양성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사회 자체가 성차별을 할 경우 오히려 쉽게 그 사회의 관례와 제도에 익숙해 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고등학생 대상으로 남녀 공학과 비 공학이라는 학교환경이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김희옥, 2002).

또한 고등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이 대체로 높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성불평등에 둔감하고 여학생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사회관습과 교육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으며 여성들이 불평등을 느끼며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의 실태에서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학생들도 절대 다수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양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송훈, 2005).

학교형태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여자 고등학생, 남녀공학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남자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이호숙, 2003).

배은주, 이송자(2005)의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을 수업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과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생활영역, 학교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모두 실험집단에서 남녀평등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업지도안을 개발·적용하여 양성평등의식 정립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바탕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남녀학생에게 서로 다르게 배분함으로써 지극히 성차별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성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해진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양성평등교육을 다룰 수 있는 수업시간 확보와 국가차원의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 등 별도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분남, 2003). 양성평등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은 물론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인간존중의 가치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이은희(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이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영역별 교육내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내용의 실천에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앞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양성평등의식은 생물학적 요소에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존한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습성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다.

## 2. 주생활 교육내용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 목적, 필요, 능력에 알맞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교과학습의 목표 및 내용은 학습자 자신에 의해 필요한 가치로 인식될 때 가장 큰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의 여러 문제를 가정과 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종합과학, 응용과학, 실천과학으로서 기초교육, 생활교육인 교양교육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심신의 성숙 정도와 욕구, 특성 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

직하여 학습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강분, 최목화, 1994).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주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에게 주생활 환경의 향상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거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거 및 주거환경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계획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내설비 등 주택을 관리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은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정생활 기술을 습득하여 가족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화 과정에 기여한다. 또한 자녀들의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과 교육은 1992년에 고시(시행 1995년)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내용에 남녀 평등의식 함양을 강조하여 남녀 공통과목으로 전환하였고,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4).

가정과 교육내용 중 주생활 교육에서는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균형을 이루며 동시에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모두 지닌 양성적 인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여러 상황에서 성 고정관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생활 단원의 교과 내용 활용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성숙, 1992; 진상윤, 2004; 광경숙, 2006). 이러한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에서 보이는 성별의 차이를 극복한다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융통하고 융통성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주생활 교육은 중학교 3학년인 9학년의 '가족생활과 주거' 단원과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의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 심화선택 과목인 가정과학의 '주생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학년 기술·가정에 제시되어 있는 주생활 교육내용은 '가족생활과 주거' 단원 하에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유지와 보수'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에는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 하에 '아름다운 우리집 꾸미기'로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실내디자인 요소', '주거공간의 활용', '내가 갖고 싶은 방의 디자인'의 4개 부분으로 되어있다.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10학년까지 습득했던 주생활 교육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주생활' 단원 하에 '주생활과 환경', '주거의 디자인', '주거의 관리' 3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주거공간의 활용 단원은 학생들에게 주생활의 질적 개선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방안과 자신의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정과 교육에서 주생활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며, 가정과 교육 전반의 연구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주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주생활 단원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 주생활 단원의 관심과 흥미도, 주생활 단원의 실험·실습내용 수준 적합성에 대한 견해, 주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주생활 단원 활용도로 구분할 뿐 양성평등과 같이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선행연구에서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는 계열과 생활수준, 가족형태, 집 안 일을 돕는 정도, 가정생활의 만족도, 여성이란 점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상업계 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가족일수록, 집 안 일을 많이 도울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여성이란 점에 만족할수록 활용도가 높았다(고현숙, 김기남, 1988).

또한 주생활 단원의 필요도는 중학생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별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중학교 남학생은 주거 위생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기기 관리, 공간계획 및 설계, 실내장식 순이었다. 여학생은 주거위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간계획 및 설계, 가정기기 관리, 실내장식 순으로 나타나 남·여학생간의 필요도 인식에 차이가 났다(김순애, 1990).

조현주(1992)의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은 실내장식인 반면, 남자 중학생은 간단한 목공예품 제작이었다. 주생활 단원의 실험·실습내용 수준은 여중생이 가구배치 실습에 대해 46.8%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평면도나 구성도 그리기는 25.4% 만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습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준에 비해 다루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성숙(1992)은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이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는 높았으며 또한 주생활 단원 수행 능력은 주거위생과 설비, 주거환경 미화, 주거공간계획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아 이수한 학생이 비이수 학생 보다 활용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는 환경미화, 위생과 설비, 공간계획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 주거환경 미화 영역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활

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거위생과 설비영역이 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물리적 환경 요소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강분, 최목화,1993).

오현주(199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주생활 단원의 인식은 가정과 전 영역 중 중간 정도를 차지하며 단원 내용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주생활 교육내용의 필요도는 주택의 선택, 주택의 인테리어, 주택의 관리방법 순으로 높았다. 주생활 교육 전 영역에 대해 필요도가 높았다. 특히 주택의 설비와 시설, 주택의 설계는 남학생이, 주택의 인테리어는 여학생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 남·여학생 간의 관심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이금남 외1996).

신용해, 조재순(1999)의 연구에서 주생활 단원을 배운 남학생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되며 활용도에 있어서 남·여학생의 차이가 절반 정도 있었다는 결과는 교수 학습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4, 5, 6차 교과과정 중에 수행된 연구들이다. 다음으로 7차 교과과정에서 연구한 진상운(2003)은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일수록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고 가구의 재활용이나 공간 활용 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생활 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인식이 달라지므로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요구도와 인식을 반영하여 학습지도를 하여야 교과 교육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제시된 선행연구는 4~6차 교과과정 중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인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실시 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정교과 중 주생활내용이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설비, 주택의 유지보수로 가장 양성이 평등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가정학은 실천과학이므로 이를 학습하면 실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이미 학습한 남녀 대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를 양성평등의식과 더불어 조사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대학의 남녀 학생 488명이다. 본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 연구로써 남녀 대학생을 각각 30명씩 임의로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7월부터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 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시키고 488부 만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이 240명(49.2%), 여학생이 248명(50.8%)이었으며 연령별로 20세~25세가 373명(76.4%)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265명(54.3%),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293명(60.0%)으로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기술·생산직이 134명(27.5%), 어머니는 취업주부가 333명(68.2%)으로 많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중류가 274명(56.1%)으로 많았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로는 공동주택에 사는 학생이 330명(67.6%)으로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 (%)

구분		계
성별	남	240( 49.2)
	여	248( 50.8)
연령	20~25세	373( 76.4)
	26~30세	115( 23.6)
부모학력	아버지 고졸이하 대졸이상	223( 45.7) 265( 54.3)
	어머니 고졸이하 대졸이상	293( 60.0) 195( 40.0)
부모직업	아버지 전문직 사무·행정직 판매·서비스직 농업·생산·기술직	112( 23.1) 110( 22.5) 132( 27.0) 134( 27.5)
	어머니 취업주부 전업주부	333( 68.2) 155( 31.8)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류	163( 33.4)
	중류	274( 56.1)
	중하류	51( 10.5)
주택형태	단독주택	158( 32.4)
	공동주택	330( 67.6)
계		488(100.0)

##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에는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제시한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개발' 자료로 '가정생활영역', '학교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각 10문항으로 총 40문항을 조사하였다.

주생활 교육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과목에서 진상윤(2003)이 개발한 자료를 '생활공간의 활용' 영역 10문항, '실내 환경과 설비' 영역 10문항, '주택유지와 보수' 영역 20문항으로 총 40문항을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형태를 조사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1.5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모두  $\alpha$ 값이 0.8이상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이 없어 전체 문항을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중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표 2>와 같다. 즉, 양성평등의식의 전체평균은 3.23으로 중간수준 보다 약간 높

<표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

구분	남 (n=240)	여 (n=248)	평균	t-value
가정생활	3.22	3.48	3.36	-5.396***
학교생활	3.15	3.36	3.26	-5.074***
직업생활	3.01	3.35	3.18	-7.215***
사회생활	2.94	3.30	3.12	-8.094***
평균	3.08	3.37	3.23	-7.251***

\*\*\*p<.001

았다. 영역별로 볼 때 가정생활영역이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순이었다. 이는 가정생활 영역이 높고 사회생활 영역이 낮은 것은 선행연구(김미숙, 2003; 배은주 등; 2005; 사미숙, 2003; 이호숙, 2003)와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평균(3.37)이 남학생(3.03)보다 높았다. 또한 가정생활영역에서 여학생이 가장 높았고 사회생활 영역에서 남학생이 가장 낮았다. 양성평등의식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김선희, 2002; 김희옥, 2002; 사미숙, 2003; 이호숙, 2003; 최동숙, 전경숙, 2006)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학생의 양성 평등의식이 낮은 것은 양성평등의식이 생물학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보다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에서 가정생활영역이 가장 높은 것은 현재 가정의 생활기구나 설비 등의 발달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남녀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여학생이 더욱 양성이 평등하게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나 직업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도 사회가 평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잔존되어 있는 의식 중에는 아직도 남학생은 학교나 직업,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결과로 이에 여학생이 더 강하게 양성평등의식을 주장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2. 성별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성별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는 <표 3>과 같다.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전체평균은 3.12로 중간수준 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최동숙, 전경숙(2006)의 연구의 '가족생활과 주거'영역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선호도와 학습효과 보다 약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주생활영역을 학습한 시기가 중·고등 학생과

<표 3> 성별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영역	남 (n=240)	여 (n=248)	평균	t-value
생활공간활용	3.17	3.27	3.22	-1.868
실내환경설비	3.17	3.14	3.16	.576
주택유지보수	3.09	2.87	2.98	5.742***
평균	3.15	3.10	3.12	1.253

\*\*\*p<.001

는 시기적으로 3년에서 10여년의 시간차가 난 결과로 사료된다.

영역별로 볼 때 '생활공간활용'이 가장 높고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유지와 보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평균(3.15)이 여학생(3.10)보다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생활공간활용'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주택유지와 보수'의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주택유지보수'영역에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실내환경과 설비'와 '주택유지와 보수'의 활용도가 높고, 여학생이 '생활공간의 활용'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활용도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선행연구(이강분, 최목화, 1994; 이순희, 2003; 진상윤,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활용도에서 차이가 난 '주택유지보수' 영역은 가정학 중에서도 남학생이 흥미로워 하는 분야이기도 하며 '주택유지와 보수'와 같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남학생의 활용도가 큰 것은 조

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자의 20% 이상이 26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군복무를 마쳤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생활공간활용' 같은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영역은 여학생이 더 많은 관심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도 성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최근 양성평등의 교육적 측면에서 가정과 교육과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가 중간 정도인 것은 학습한 시기와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3.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상호관련성

1) 양성평등의식 군집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조사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 군집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양성평등의식을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양성평등의식 군집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는

<표 4> 양성평등의식 군집에 따른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양성평등의식군집		주생활교육내용		생활공간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유지와 보수	전체평균
가정생활 영역	높은집단	85		3.72 <sup>a</sup>	3.60 <sup>a</sup>	3.07	3.46 <sup>a</sup>
	중간집단	314		3.13 <sup>b</sup>	3.06 <sup>b</sup>	2.98	3.06 <sup>b</sup>
	낮은집단	89		3.06 <sup>b</sup>	3.07 <sup>b</sup>	2.91	3.02 <sup>b</sup>
	F-value			43.674***	41.709***	2.843	36.019***
학교생활 영역	높은집단	35		3.55 <sup>a</sup>	3.45 <sup>a</sup>	2.79 <sup>b</sup>	3.26 <sup>a</sup>
	중간집단	194		3.43 <sup>a</sup>	3.24 <sup>b</sup>	3.03 <sup>a</sup>	3.23 <sup>a</sup>
	낮은집단	259		3.03 <sup>b</sup>	3.05 <sup>c</sup>	2.97 <sup>a</sup>	3.02 <sup>b</sup>
	F-value			34.946***	13.703***	4.534*	16.055***
직업생활 영역	높은집단	115		3.62 <sup>a</sup>	3.32 <sup>a</sup>	2.93 <sup>a</sup>	3.29 <sup>a</sup>
	중간집단	349		3.12 <sup>b</sup>	3.12 <sup>b</sup>	3.02 <sup>a</sup>	3.09 <sup>b</sup>
	낮은집단	24		2.83 <sup>c</sup>	2.88 <sup>c</sup>	2.65 <sup>b</sup>	2.79 <sup>c</sup>
	F-value			42.607***	9.650***	9.370***	17.301***
사회생활 영역	높은집단	236		3.35 <sup>a</sup>	3.24 <sup>a</sup>	3.01	3.20 <sup>a</sup>
	중간집단	197		3.14 <sup>b</sup>	3.11 <sup>a</sup>	2.97	3.07 <sup>b</sup>
	낮은집단	55		2.98 <sup>b</sup>	2.99 <sup>b</sup>	2.89	2.95 <sup>c</sup>
	F-value			12.787***	3.287**	1.801	9.142***
전체평균				3.22	3.16	2.98	3.12

\*\*p<.01 \*\*\*p<.001 문자 ab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분석한 결과(p<.05), 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가 높았다. 가정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전 영역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으나, 학교생활영역의 '주택유지와 보수'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중간이거나 낮을수록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집단 85명, 중간 집단 314명, 낮은 집단은 89명으로 대부분 중간 집단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생활공간활용'과 '실내환경과 설비'(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높은 집단일수록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집단이 35명, 중간 집단 194명, 낮은 집단 259명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집단이 많았다. '생활공간활용'과 '실내환경과 설비'(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택유지와 보수'(p<.05)는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의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다.

직업생활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집단은 115명, 중간 집단은 349명, 낮은 집단은 24명으로 대체적으로 중간 집단 이상이였다. 주생활 교육내용 모든 영역(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높은 집단의 활용도가 높았다.

사회생활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집단은 236명, 중간 집단은 197명, 낮은 집단은 55명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집단이 많았다. '생활공간 활용'(p<.001)과 '실내환경과 설비'(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높은 집단의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은 평균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주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의생활의 활용(이은희, 2003)에서도 같은 결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교육내용 활용도도 높았다. 그러나 '주택유지와 보수' 영역과 같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직도 이러한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남자들이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사고와 행동이 각각의 성에 의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구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상호관련성은 <표 5>와 같다.

양성평등의식의 모든 영역은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 대부분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표 5>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상관관계

구분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			
	생활공간활용	실내환경설비	주택유지보수	
양성 평등 의식	가정생활	.399**	.359**	.208**
	학교생활	.344**	.277**	.069
	직업생활	.427**	.223**	.049
	사회생활	.320**	.201**	.146**

\*\*p<.01

'생활공간활용'과 '실내환경과 설비'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고, '주택유지와 보수'는 가정생활영역과 사회생활영역의 의식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양성평등의식이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에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를 조사하고 자신의 성에 근거한 양성평등의식과 실생활에서 주생활 교육내용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주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중간수준 보다 약간 높았다. 남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현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양성평등의식에서 남녀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모든 교과목의 운영은 물론 가정이나 사회의 분위기도 중요하리라 하겠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는 중간 정도였다. '주택유지와 보수'에서만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남학생이 높았다. 이는 가정교과 중 양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교과는 실천과학이므로 시간차가 있다고 해도 실생활에 실천해야 하는 교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고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남학생이 더 많은 관심가지고 실생활에 활



용하는 것은 아직도 성 이분법적 사고가 잔존하는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와의 관계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에서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 양성평등의식이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지속적인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 양성이 모두 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과내용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모두 학습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한 교과 내용의 개발이 곧, 실천과학으로써 가정교과의 발전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주생활교육내용 활용도

### 참 고 문 헌

- 고현숙, 김기남 (1989).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31.
- 곽경숙 (2006). 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중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7-185.
- 교육부 (1994). 가정과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제7차 실과(기술·가정), 가정과학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기술·가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미숙 (2003).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분남 (2003).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2).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 (1990).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 왕석순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판옥 외 8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주) 지학사.
- 김희옥 (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성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주, 이승자 (2005).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교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1-13.
- 범윤경 (1998). 학교교육과 성평등의 관련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봉공진 외 5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형성출판사.
- 사미숙 (2003). 가정과 교육과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훈 (2005). 울산광역시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균 외 7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대학교과서(주).
- 신용해, 조재순 (1999).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여 고등학생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47-57.
- 오현주 (1997).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성숙 (1992).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31-41.
- 윤인경 외 6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교학연구사.
- 이강분, 최목화 (1993).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구 외 6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주) 금성출판사.
- 이상혁 외 11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주) 두산.
- 이순희 (2003).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따른 가사노동 의식과 참여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 외 7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주)천재교육.
- 이은희 (2003).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관련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859-869.
- 이태욱 외 6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흥진 P&M.
- 이호숙 (2003).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실태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봉 외 7인 (2006). 중학교 기술·가정 3, 교학사.
- 조현주 (1992). 중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상윤 (2004).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 조사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숙·전경숙 (2006). 중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 교과 선호도 및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39-54.
- 한국여성개발원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McHale, S.M., Bartko, W.T., Crouter, A.C. and Jenkins, M. (1990). Children's housework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ex role behaviors and attitudes. *Child Development* 61, 1413~1426.

(2007. 8. 23 접수; 2007. 11. 1 채택)